

2015 / 06 / 19 (FRI)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 섹터는 약보합세. 美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비둘기파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 하루만에 순매도세로 전환 하면서 약보합 마감.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사.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LG이노텍, 삼성테크윈 강세. 반면 외인의 매도세로 서울반도체, 삼성전기, 컴투스 약세.

종목별로는 차량부품 주주 및 카메라모듈 호조로 인한 실적기대감에 LG이노텍이 7.0% 상승 마감.

###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LG이노텍	61 억	삼성전자	-217 억
LG전자	57 억	SK하이닉스	-109 억
NAVER	26 억	삼성SDI	-72 억
LG디스플레이	25 억	SK C&C	-69 억
웹젠	20 억	다음카카오	-64 억
아프리카TV	18 억	삼성전기	-46 억
바이오스마트	9 억	컴투스	-39 억
실리콘웍스	8 억	이오테크닉스	-35 억
선데이토즈	7 억	STS반도체	-33 억
엔게임	7 억	서울반도체	-28 억
유니쿼스	7 억	월익IPS	-21 억
OCI머티리얼	6 억	위메이드	-20 억

###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전자	385 억	LG전자	-86 억
삼성SDI	134 억	삼성에스디에	-69 억
LG이노텍	83 억	LG디스플레이	-45 억
이오테크닉스	48 억	STS반도체	-42 억
SK C&C	41 억	SK하이닉스	-37 억
컴투스	34 억	하나마이크론	-31 억
월익IPS	30 억	삼성전기	-30 억
삼성테크윈	26 억	유비벨룩스	-27 억
OCI머티리얼	21 억	다음카카오	-11 억
아프리카TV	17 억	데스	-9 억
월익머트리얼	17 억	KH바텍	-8 억
유니테스트	15 억	마이크로컨텍	-8 억

###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6908.36	-0.3%	-9.0%
DDR3 2Gb (Spot)	1.59 \$	0.0%	-28.1%
NAND 64Gb (Spot)	2.65 \$	0.0%	9.5%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0.0%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6 \$	-1.1%	-8.5%
LCD TV 50" Open Cell	200 \$	-0.5%	-0.5%

###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86.37	-0.4%	-7.1%	-525 억	510 억
KRX Semicon	1,918.58	-0.1%	2.2%	-469 억	432 억
(코) 반도체	992.33	-0.6%	24.5%	-166 억	97 억
(코) IT H/W	409.12	-0.1%	17.4%	-242 억	106 억
(코) IT S/W	2,180.74	-0.3%	9.1%	-151 억	65 억

###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265,000	0.9%	-4.7%	-217 억	385 억
LG전자	50,500	-0.4%	-14.6%	57 억	-86 억
삼성SDI	122,500	-0.4%	5.6%	-72 억	134 억
삼성테크윈	32,500	4.2%	36.3%	-12 억	26 억
서울반도체	16,350	-3.5%	-19.1%	-28 억	1 억
신도리코	66,300	-1.0%	-2.2%	0 억	-2 억

###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4,300	-1.4%	-7.2%	-109 억	-37 억
이오테크닉스	92,800	1.6%	-25.9%	-35 억	48 억
월익IPS	14,750	1.0%	5.7%	-21 억	30 억
리노공업	49,200	-0.6%	28.5%	-7 억	5 억
유진테크	17,550	2.3%	8.7%	-4 억	6 억

###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58,500	1.6%	-11.9%	6 억	-69 억
SK C&C	271,500	-0.4%	27.2%	-69 억	41 억
포스코 ICT	5,160	2.4%	-2.6%	1 억	0 억
다우기술	16,850	1.5%	41.0%	4 억	-4 억

###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24,000	-1.0%	-12.4%	26 억	13 억
다음카카오	105,000	-1.3%	-15.0%	-64 억	-11 억

###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6,450	0.4%	-21.4%	25 억	-45 억
에스에프에이	48,950	-0.4%	-1.4%	-2 억	0 억
솔브레인	49,700	3.6%	54.6%	4 억	13 억
덕산하이메탈	8,050	-1.5%	-27.8%	-1 억	0 억

###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1,600	-3.4%	-5.7%	-46 억	-30 억
LG이노텍	105,500	7.0%	-6.2%	61 억	83 억
파트론	8,350	-1.8%	-28.9%	-19 억	0 억
루멘스	4,660	-2.1%	-33.9%	-1 억	0 억
일진디스플레이	9,080	-3.1%	33.1%	-8 억	-3 억

###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82,500	-1.6%	0.3%	-5 억	-1 억
컴투스	131,900	-2.4%	-0.3%	-39 억	34 억
NHN엔터테인먼트	54,300	0.7%	-37.9%	-20 억	1 억
게임빌	90,800	-3.4%	-24.8%	-3 억	-6 억
위메이드	37,950	1.3%	0.4%	-20 억	4 억
선데이토즈	16,400	3.1%	-4.7%	7 억	4 억

###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40,000	-0.7%	454.5%	-3 억	7 억
한글과컴퓨터	17,850	-0.6%	-11.6%	-3 억	4 억
코나아이	32,500	-1.2%	-3.6%	-10 억	-1 억
슈프리카	21,700	6.1%	-14.7%	6 억	2 억

###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3.50	0.8%	4.4%
MSCI Internet	161.32	1.0%	5.6%
MSCI Software	171.45	0.3%	4.8%
MSCI Semicon	221.86	1.0%	0.8%
MSCI IT Services	125.49	1.1%	6.6%

###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56.18	1.8%	4.8%
Facebook	82.91	1.4%	6.3%
Tencent	154.30	0.0%	37.2%
Baidu	210.70	0.6%	-7.6%
Yahoo	40.91	-0.1%	-19.0%

###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6.72	1.6%	0.6%
Oracle	42.74	-4.8%	-5.0%
SAP	73.26	0.5%	5.2%
EMC	27.40	0.6%	-7.9%
Symantec	24.46	1.5%	-4.7%

###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7.88	0.5%	15.9%
Nokia	7.27	2.1%	-7.5%
Lenovo	11.14	0.7%	9.2%
ZTE	20.15	-1.5%	19.7%
HTC	80.3	0.8%	-43.5%

### Semicon

close	1D	YTD	
Intel	32.38	1.3%	-10.8%
Qualcomm	67.36	1.2%	-9.4%
Texas Instruments	54.22	1.7%	1.4%
Micron	24.46	-0.1%	-30.1%
Toshiba	430	-1.2%	-16.1%
Renesas	899	-1.3%	9.2%
STMicro	8.10	0.2%	8.4%

###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8.25	0.6%	4.9%
HP	32.08	-0.4%	-20.1%
Accenture	97.31	0.4%	9.0%
Fujitsu	714	-0.5%	10.8%
NTT Data	5,240	-1.5%	16.1%
CSC	67.73	0.6%	7.4%

### Hardware

close	1D	YTD	
GE	27.37	0.4%	8.3%
Panasonic	1,700	-1.4%	19.1%
SONY	3,679	-0.5%	48.8%
Whirlpool	187.25	0.9%	-3.3%
Electrolux	261.30	-0.4%	14.2%
Haier	21.70	-0.2%	17.6%

###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20,190	1.3%	52.4%
KYOCERA	6,316	-1.8%	13.7%
Nidec	9,016	-0.6%	14.8%
TDK	9,790	-0.5%	36.7%
Ibiden	2,100	-1.2%	17.4%

### Display

close	1D	YTD	
Sharp	165	-1.8%	-38.4%
Japan Display	507	-0.8%	37.0%
AUO	4.69	0.2%	-7.9%
Innolux	16.45	-1.8%	6.8%

## 전자부품 Component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LG이노텍	7.0%	실적전망

### News & Issue

#### LG이노텍, 차량부품 수주 및 카메라모듈 호조로 인한 실적기대감

LG이노텍의 2분기 실적은 단기 바닥을 통과해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됨. 당초 예상에 비해 BLU용 LED와 터치윈도우 매출이 부진하지만, 환율여건이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카메라모듈과 패키지가 판이 선전하고 있으며, HDI도 G4 효과에 힘입어 흑자 전환할 전망. 수주면에서는 차량부품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어 향후 매출전망 밝은 편.

차량부품은 올해2.5조원의 수주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해 연말 수주잔고가 6.1조원에 달할 전망. 이같은 호조는 자동차 안전관련 주요국 법제화, 자율주행 관련 부품수요 증가 추세등과 연동된 것으로서 고객다변화 및 제품포트폴리오 다변화 성과가 발휘되고 있음.

카메라모듈도 긍정적. 후속 아이폰향으로 화소수가 4년 만에 진화하고, OIS가 기본장착됨으로써 공급단가가 상당히 상승할 전망. 하반기 국내고객 대상 듀얼카메라의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추정되고, 중국의 LTE 확산추세와 더불어L사, H사 등 중화고객대상으로도 매출이 확대될 전망. 향후 듀얼카메라 Trend의 대표적 수혜업체가 될 것.

신형 아이폰 효과가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선행하는 한편, 카메라 사양이 크게 향상되고, LED의 감가상각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사이클이 시작되며, 차량부품 매출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지난해와 달리 국내 주고객의 신규Flagship 스마트폰향 부품매출이 더해지며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전망.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삼성전기	-3.4%	실적전망

### News & Issue

#### 삼성전기, 단가 인하 압박으로 실적개선 제한될 전망

삼성전기는 2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11.4% 감소한 7,3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Galaxy S6 출하량도 1,700만대에 그칠 전망. 3분기의 경우 삼성전자의 Galaxy S6 Edge Plus와 Galaxy Note5 출시로 High End 부품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이 가운데 Apple의 신제품에 FC-CSP와 MLCC 납품이 예상됨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스마트폰 경쟁 심화에 따른 전방 거래선의 단가 인하 압박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실적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동사는 한계 사업에 대한 재조정 및 핵심 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을 통해 장기적인 체질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사업 재조정을 통해 동사의 수익성은 일정 부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방 시장에서의 부품 단가 인하 압력을 흡수하는 수준의 원가절감으로는 추가 재평가를 이끌어내는 것 어렵다고 보임.

동사의 핵심 부품 Solution (수동부품, 무선충전, Camera Module, 통신 Module, PKG)은 미래 성장동력인 IOT, Connected Car, 가정용 로봇 등의 UX 제고를 위한 필수 부품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재평가를 위해서는 경쟁자가 쉽게 추격하지 못하는 이익 창출 능력이 큰 전략 부품 개발 및 자동차용 전장 시장과 같은 새로운 Application의 이익 기여도 상승 등이 수반될 때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파트론	-1.8%	실적전망

### News & Issue

#### 파트론, 2분기 실적 급감할 것으로 예상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생산업체인 파트론의 2분기 매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 특히 신규 성장동력인 센서와 B2C 부문의 본격적인 매출 가능성은 아직도 오리무중.

파트론의 2분기 매출액은 1,79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3%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115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8.2% 줄어들 전망.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갤럭시 S6와 S6엣지의 판매량이 점차 둔화되고 있기 때문.

업계 전문가들은 파트론이 이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 현재 파트론의 매출의 70%는 카메라 모듈이 차지. 또 기존 사업군인 반도체와 안테나, 유전체 필터 등 RF군의 매출 비중이 25%. 그러나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센서와 B2C 사업의 매출은 5%에 불과. 즉 사업구조가 편중돼 시장 상황에 맞춘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것.

이에 파트론도 B2C시장 확대를 위해 블루투스 및 무선충전 등 웨어러블 시장에 참여한 바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센서도 개발은 완료했지만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됨. 신규 사업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 파트론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함.

한편 파트론은 지난 16일 자회사인 옵티맥과 솔레즈를 흡수·합병한다고 발표. 옵티맥은 카메라 모듈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했던 회사고 솔레즈는 반도체 센서 제조 회사. 이와 관련해 파트론 관계자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회사를 합병했다"고 설명.

## 하드웨어 Hard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삼성테크윈	4.2%	최근이슈

### News & Issue

#### 한화, 삼성테크윈 인수로 방산·발전설비 시너지 본격화

삼성테크윈은 한화와의 합병을 통해 방산과 발전설비 시너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에 강세. 6월 말 한화의 삼성테크윈 인수가 마무리될 것이며 인수후 한화 연결 자회사로 편입되면 한화는 테크윈의 30% 전후 지분을 보유하게 됨.

이 영향으로 한화의 EPS는 증가하는 금융비용을 감안해도 올해와 내년에 기존 대비 각각 3%와 7% 상향조정될 전망. 한화는 항공기와 로켓의 발사체 및 유도기술 분야에서 매출을, 테크윈은 항공기 엔진부품 분야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 두 부문의 결합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반도체 Semicon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유진테크	2.3%	최근이슈

### News & Issue

#### 유진테크, 94억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 체결

유진테크는 15일 중국 삼성반도체(Samsung (China) Semiconductor Co.Ltd)와 94.4억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12.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계약 종료일은 오는 9월25일.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원익IPS	1.0%	최근이슈

### News & Issue

#### 원익IPS, 중국 삼성반도체와 692억 규모 공급계약

원익IPS는 18일 중국 삼성반도체와 692.5억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2.43% 수준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최근이슈

### News & Issue

#### PC수요와 DRAM가격 변화율은 상관관계 낮아

PC수요부진이 지속되면서 PC DRAM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PC 수요와 DRAM수급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는 분석 제기됨. 2013년에 전세계 PC출하량은 전년대비 13%감소했지만 PC DRAM가격은 전년대비 4% 상승. 2014년은 PC수요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PC DRAM가격은 전년대비 5% 하락.

이렇게 PC DRAM가격과 PC수요와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이유는 1) PC DRAM수요에서 Set수요의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채용량(contents per box)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고, 2) 채용량은 DRAM가격에 의해 수요에 크게 영향을 주고, 3) 2009년 이후 전체 DRAM시장에서 PC DRAM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

PC OEM업체들의 재고증가로 인한 PC DRAM수급 우려도 있는데, 우리는 PC OEM업체들의 DRAM 재고증가가 DRAM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판단. PC OEM업체들의 재고는 DRAM가격의 하락을 통해 채용량 증가로 이어져 PC출하량의 증가 없이도 단기간에 재고소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PC업체들의 DRAM재고가 PC DRAM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역사적으로 PC DRAM의 가격하락률과 PC의 DRAM 채용량 증가율은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현재 높아진 PC OEM업체들의 재고가 2분기 가격하락을 통한 채용량 증가를 통해 해소되면서 하반기에는 가격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4월부터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NAND고정가격이 하반기에는 상승할 수 있을 전망. NAND수요의 가장 큰 application인 SSD 수요증가세가 여전히 높아 2015년 NAND수요 증가율은 39% 수준을 나타낼 전망.

반면 NAND의 capa 증가율은 36%로 수요증가율이 NAND업체들의 생산량 증가율보다 높아 수급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전망. NAND 가격은 2016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NAND사업의 수익성 개선도 이어질 전망.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인터넷 전문은행 연내 1-2곳 인가 전망, 전산외부 위탁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최저 자본금이 500억원으로 결정됨. 현재 은행과 동일한 영업범위를 부여했으며 전산설비의 외부 위탁도 허용해 주기로 함. 은행법상 현행 4%인 비(非)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대폭 높아짐.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금지됨.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 금융위는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함. 이를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상향 조정.

논란이 됐던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1,000억원)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정해짐. 하지만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를 적용해 사실상 은행의 모든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금융위는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인가 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한편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해 IT 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을 허용하기로 함. 또,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인가하되,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가요건상 예외를 인정하기로 함.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도 허용. 기존에는 고객이 계좌개설시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은행직원과 대면(face-to-face)해 실명을 확인 받아야 하므로 점포 없는 은행 출현에 제약이 있었는데 오는 12월중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비대면확인을 가능하게 할 계획.

심사규정으로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혁신성과 금융소비자 편의성 등을 인가심사시 중점적으로 고려할 방침.

금융위는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연내 1~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시범 인가한다는 계획. 이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를 고려하는 한편 시범 인가된 은행의 영업추이 및 소비자반응, 향후 성장가능성, 추가 신청 소요 등을 감안해 본격 인가에 나서겠다는 방침.

**소프트웨어 Soft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해외	Oracle	-4.8%	실적발표

**오라클, 달러강세로 실적 타격, 클라우드만 성장**

오라클이 달러 강세 여파로 클라우드 매출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 기록. 오라클은 SW, 하드웨어, 서비스 부문에서의 부진은 환율 영향으로 돌리고 성과에 대한 기대는 클라우드에 집중시킴. 오라클은 17일(현지시각) 환율 변동에 따라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2015 회계 4분기 실적을 공개.

GAAP 기준 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113.2억달러에서 107.1억달러로 5% 감소. 소프트웨어(SW) 및 클라우드 부문 매출의 감소폭이 컸고 하드웨어 시스템 부문과 서비스 부문 매출 역시 동반 하락. SW 및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89.1억달러에서 84억달러로 6% 감소.

SW 및 클라우드 부문 매출의 감소는 신규 SW라이선스 사업 부진에 따른 영향. 신규 SW라이선스 매출이 37.7억달러에서 31.4억달러로 17% 감소. SW라이선스 갱신 및 제품지원 매출은 47억달러에서 46.9억달러로 flat.

매출 규모가 작은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이 있었지만 신규 SW라이선스 매출 하락을 상쇄하진 못함. 서비스형 SW와 서비스형 플랫폼 매출이 3.2억달러에서 4.2억달러로 29% 성장했고, 서비스형 인프라 매출도 1.3억달러에서 1.6억달러로 25% 증가.

하드웨어 시스템 부문 매출은 14.7억달러에서 14.1억달러로 4% 감소. SW와 마찬가지로 신규 제품 공급 실적이 줄어든 결과. 하드웨어 시스템 제품 매출이 8.7억달러에서 8.2억달러로 6% 감소.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매출은 6억달러에서 5.9억달러로 1% 감소. 서비스 부문 매출은 9.4억달러에서 9억달러로 4% 감소.

사프라 카츠 오라클 CEO는 "빠른 클라우드 수익 증가를 확실한 추가 매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4분기 환율 영향을 견어내면 서비스형SW와 플랫폼(SaaS and PaaS) 매출은 34% 성장한 셈인데, 다음 회계연도엔 그 성장률이 60%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언급.

사실 환율 변동이 없었다면 오라클의 4분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도 있음. 오라클이 제시한 고정 환율 기준에 따르면 전체 SW 및 클라우드 부문, 하드웨어 시스템 부문, 서비스 부문 매출 모두 전년동기대비 성장한 셈. 다만 신규 SW라이선스 매출 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매출 뿐아니라 오라클의 4분기 순이익도 전년동기대비 하락. 36.5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24%나 감소. 환율 변동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14% 감소한 수치.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9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1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1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